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철릭 고찰

김명자 · 이소영[†]

건국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원 전통복식전공 석사
건국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부교수[†]

A study on Cheollik in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Myung-Ja Kim · So-Young Lee[†]

Master, Major of Traditional Clothing, Graduate School of Art & Design, Konkuk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Dept. of Apparel Design, Konkuk University[†]

(2018. 9. 18 접수; 2018. 9. 28 수정; 2018. 12. 21 채택)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n investigation into Cheollik based on 288 records about it at the homepage of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on the Internet. Cheollik was called in diverse names and worn by various social classes from kings to common people, but it was solidified as clothes for military officers toward the latter half of Joseon. Not only did it serve the purpose of clothes, but it also was used for a royal grant, diplomacy, shrouding a corpse, and royal coffin. It served the diplomatic purposes a lot especially during the reign of King Sejo and King Seongjong. Cheollik was usually made of cotton, hemp, silk, and mixed fabric with silk used most. Its major colors include white, green, red, blue, black, purple, grey, and yellow with white used most. The fabrics and colors of Cheollik became simplified toward the latter half of Joseon. Silk was most used in Cheollik for a royal grant, shrouding a corpse, and royal coffin. White was most used in Cheollik for kings' visit to royal tombs or their participation in ancestral rites. There were limitations with the selection of materials according to the social status and situations. It was stipulated that only Sa and Ju were used to make Cheollik for Dangsanguan and Danghaguan. Cheollik made of silk was banned for country residents and merchants. The color of Cheollik for Danghaguan was changed to blue and then red. Of military officers, only those who had a Gonsu title or higher were allowed to wear Cheollik made of silk in various colors. In the end, Cheollik was abolished for its low convenience and efficiency during the rule of King Gojong.

Key Words: Cheollik(철릭), color of Cheollik(철릭 색상), fabric of Cheollik(철릭 직물),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조선왕조실록), wear of Cheollik(철릭착용)

[†]Corresponding author ; So-Young Lee
E-mail : so8404@konkuk.ac.kr

I. 머리말

철릭은 조선시대의 대표적 의복으로 문헌, 회화, 출토복식 등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다양한 계층에서 착용되어 온 조선시대 남성 포제류(袍制類)의 대표 복식이다. 조선시대 남성의 의복은 포를 중심으로 발달하였으며 예(禮)를 중시하는 유교중심사회의 영향으로 연거시(燕居時)에도 바지와 저고리 위에 포를 갖추어 입었다. 상의하상식(上衣下裳式)의 하상에 주름이 잡혀 있는 형태로 이러한 형태를 벽적포류(裊積袍類)라 하며 기마시(騎馬時)나 민첩하게 행동하기에 편리한 의복이라 할 수 있다(김명자, 2015).

철릭의 기원 및 명칭에 대해 연구자들마다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하여 철릭의 기원에 대해서는 벽적포류의 일종인 원(元)의 질손(質孫)에서 유래(소황옥, 양승옥, 2001; 이은주, 1988; 이순자, 2001)되었거나 상의하상식의 심의와 관련(김인숙, 1977; 정혜경, 2000)되었다는 의견들이 있으며, 명칭에 대해서는 중의(中衣)와 표의(表衣)에 따라 구분(강순제, 1981),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분화(이순자, 2001), 신분에 따라 명칭이 다르다가 후기로 가면서 통합(유승옥, 1991), 천익(天益)은 궁중에서, 천익(天翼)은 무관복에 사용(양승옥, 2001)되었다는 등 다양한 견해들이 있다. 이와 같이 철릭은 帖裏, 天翼, 天益, 貼裏 등의 다양한 명칭을 갖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로는, 철릭의 기원(김인숙, 1977; 김찬주, 1980), 명칭이나 특성(이은주, 1988; 장인우, 1997), 디자인(김지혜, 2007; 김현정, 2007; 최진경, 2003), 치수와 구조 분석(김진홍, 2010; 금중숙, 2011; 서지혜, 안명숙, 2001; 장인우, 2001; 최은수, 2003), 형태 및 바느질법(금중숙, 2003; 서지혜, 2002; 장인우, 2002)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철릭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나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주로 철릭의 기원이나 명칭, 출토유물 관련 연구나 특정 시기의 철릭 특성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으로 조선시대 전 시기에 걸친 철릭의 특성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철릭의 특성이나 변천 등을 거시적 측면에서 고찰하여 조선시대 철릭의 전반적 특성을 도출하고자 하며 이를 바탕으로 생활한복 디자인에서의

적용 등 철릭의 현대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 자료 및 아이디어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철릭은 우리나라 전통 포(袍)와 달리 의(衣)와 상(裳)을 각각 따로 만든 후 상의 허리에 잔주름을 잡아 의와 결합한 벽적포의 일종으로 고려후기에 수용되어 조선말기까지 착용되었다(이순자, 2001). 철릭이 서술된 문헌 상 최고(最古)의 기록은 충렬왕 대 고려가사(高麗歌詞) 정석가(鄭石歌)로 ‘므쇠로 털릭을 몰아나는 철사(鐵絲)로 주름바고이다’(양주동, 1955)라고 나타나 있으며 회화에서는 공민왕이 그린 그림으로 추정되는 천산대렵도(天山大獵圖)에 나타나 있다.

조선시대 철릭의 유형으로는 단(單), 겹(袂), 유(襦) 등이 있으며 주로 초록(草綠), 대홍(大紅), 자적(紫的), 아청(鴉靑), 백(白) 등의 색상이 사용되었다(安東金氏 墳墓發掘 調査報告書, 1989). 철릭은 길, 소매, 치마, 옷깃, 고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장인우, 1997) 조선 초기에 115cm~130cm 길이의 의장상단형(衣長裳短形)으로 상하비율이 1.2:1이었으나 임진왜란 이후 상의 길이가 길어져 상하비율이 1:2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김명자, 2015). 철릭의 주요 소재는 조선 초기에는 면주(綿紬), 면포(綿布), 저사(苧絲), 단(緞), 주(紬), 마포(麻布), 저포(苧布) 등이었으며(判決事 金欽祖先生 合葬墓 發掘調査 報告書, 1998) 조선 후기에도 이와 같은 원단이 철릭의 주요 소재로 사용(김명자, 2015)되었음을 출토 철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성을 가진 철릭은 상복(常服)의 반침옷과 용복(戎服)의 용도로 착용되었으며(정혜경, 2000) 복색상정이나 금제 등을 통한 변화 과정을 겪으며 조선시대 다양한 계층에서 착용되었다.

III. 연구의 범위 및 내용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하여 철릭을 고찰하였으며, 문헌은 조선시대의 국정사항 및 서민들의 생활상 등이 폭넓게 기록되어 조선시대의 대

표적 사료(김아람, 박윤미, 2015)라 할 수 있는 조선왕조실록으로 선정하였다. 분석 범위는 인터넷 조선왕조실록의 홈페이지(<http://sillok.history.go.kr>)에서 철릭, 천익, 첩리, 첩리, 帖裏(첩리), 天翼(천익), 天益(천익), 貼裏(첩리)의 키워드로 검색한 후 중복 검색이나 단순 거론된 내용을 제외한 총 288건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철릭의 발전과정이나 특성 변화 등을 파악하기 위해 조선시대를 시기별로 구분하여 철릭의 명칭 및 특성, 소재, 색상 등을 고찰하였다. 조선시대의 시기 구분은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전기와 후기로 구분하기도 하고 집권 정치세력의 교체를 기준으로 전기, 중기, 후기로 분류하는 등 학자마다 차이가 있으며 각 국왕별로 통치 이념이나 규범이 상이할 뿐 아니라 각 구간 별 시대적 편차가 많이 나타나므로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총 27 왕조를 편의상 9개 왕조씩 묶어 [태조~성종], [연산군~현종], [숙종~순종]의 3개 시기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은 성종실록(82건), 세조실록(54건), 영조실록(22건)의 순으로 조선시대 국력이 강했던 부흥기에 관련 기록이 많이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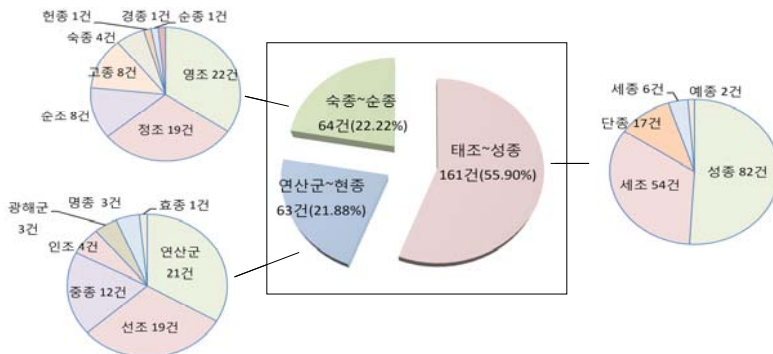
1. 철릭의 명칭 및 특성

1) 철릭의 명칭

조선왕조실록에는 철릭에 대해 ‘속옷이며 평상복(선조실록 64권, 1595)’, ‘우리나라 정복(正服)으로 황제(黃帝)의 의복제도(선조실록 64권, 1595)’, ‘무신의 평상복이고 도신의 직무복(경조실록 38권, 1793)’, ‘심의를 입고 전쟁에 나가는 뜻이 있기 때문에 융복이라 이르며 옛날에는 모포 속에 입었기 때문에 철릭이라 함’(순조실록 34권, 1834) 등으로 기록되어 있다. 철릭은 조선왕조실록에 <표 1>과 같이 ‘貼裏’, ‘帖裏’, ‘天益’, ‘天翼’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동일 실록 내에서도 각 명칭이 서로 혼용되어 사용되었다. ‘貼裏’와 ‘帖裏’는 세종실록에 처음 등장하였으며, ‘天益’은 성종실록에서, ‘天翼’은 경종실록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조선시대 전 시기에 걸쳐 ‘帖裏’로 기록된 예가 가장 많았으며 특히 ‘天翼’은 조선 후기에만 기록에 나타나 있다.

IV. 결과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철릭 관련 내용은 <그림 1>과 같이 [태조~성종] 대에 약 55% 이상 집중되어 있으며 기록이 많이 나타난 상위 3개의 실록



<그림 1>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철릭의 기록 건수

<표 1>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철릭의 명칭

실록	태조~성종									연산군~현종									숙종~순종								
	태조	정종	태종	세종	문종	단종	세조	예조	성종	연산군	중종	인종	명종	선조	광해군	인조	효종	현종	숙종	경종	영조	정조	순조	현종	철종	고종	순종
貼裏																											
帖裏																											
天益																											
天翼																											

2) 철릭의 역할 및 용도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철릭 관련 기록은 세종대에 명나라 황제로부터 받은 필단철릭(匹段帖裏)을 야인 거을가합의 협박으로 내어준 것(세종실록 25권, 1424)과 명나라로부터 흑록암화철릭(黑綠暗花帖裏), 앵가록화철릭(鶯哥綠花帖裏), 유청소철릭(柳靑素帖裏)을 받은(세종실록 103권, 1444) 것을 시작으로 국왕이 사신이나 신하 또는 기타 왜인이나 야인들에게 하사(下賜)하는 기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외 왕실의 진상(進上)이나 상공(上供) 등에 사용되는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었다.

[태조~성종] 시기에는 관리나 일반 백성에게 하사하거나 외교적인 목적으로 사용된 예가 대부분으로 성종대에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세조대에 많이 나타났다. 조선왕조실록에서 국왕이 철릭을 신하에게 하사한 기록은 단종이 수릉관(守陵官)과 시릉환관(侍陵宦官)에게 백저포직령철릭(白苧布直領帖裏)과 포철릭(布帖裏)을 내려준(단종실록 6권, 1453) 기록이 처음으로 세조대 지방의 무관이나 기타 관리들, 표도인들에게도 하사하였으며 특히 성종 때에는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하사가 많아 중앙관리, 도내유생, 지방의 무관 및 관리직, 일반백성, 표류인 등의 격려 및 치하(致賀) 수단으로 철릭이 이용되었다. 외교적 목적으로 명(明) 사신이나 기타 왜인과 야인들에게 하사한 기록은 단종 즉위년 8월에 명나라 사신 진둔(陳鈍)에게 백저포철릭(白苧布帖裏)을 준 것(단종실록 2권, 1452)을 시작으로 세조와 성종대에 많이 나타나 세조대에 백저포철릭(세조실록 1권, 1455; 세조실록 4권, 1456; 세조실록 15권, 1459; 세조실록 19권, 1460; 세조실록 46권, 1468), 남요선검철릭(세조실록 19권, 1460; 세조실록 33권, 1464; 세조실록 46권, 1468) 등과 성종대에도 백저포철릭 뿐 아니라 백면포단철릭(성종실록 156권, 1483) 및 기타 다양한 철릭을 하사한 기록이 남아 있다. 그 외에 표도인이나 표류인에게 철릭을 하사한 기록이 세조와 성종대에만 실록에 나타나 있으며 세조대에 표도인에게 백포철릭(白布帖裏), 마포철릭(麻布帖裏), 겹직신유철릭(袂直身襦帖裏)을 하사(세조실록 46권, 1468; 세조실록 47권, 1468), 성종대에 표류인에게 직

신철릭포(直身帖裏布)와 직신철릭(直身帖裏) 등을 하사(성종실록 105권, 1479)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연산군~현종]시기에는 하사 뿐 아니라 상공 및 진상의 기록도 있으며 철릭을 상공과 진상에 이용한 기록은 연산군대에만 나타나 있다. 상공에 이용된 철릭은 유철릭(襦帖裏) 및 겹철릭(袂帖裏)(연산군일기 21권, 1497), 감다할겹철릭(紺茶割袂帖裏)(연산군일기 35권, 1499), 목면철릭(木綿帖裏)(연산군일기 55권, 1504)이었으며 진상한 철릭은 망룡철릭(蟒龍帖裏)(연산군일기 52권, 1504)이었다. 철릭의 하사에 대한 기록은 선조 대를 끝으로 이후부터는 나타나 있지 않으며 [숙종~순종] 시기에는 철릭의 착용이나 의복제도 등에 관례해서만 서술되어 있다.

이와 같은 용도 외에 철릭은 상복(喪服)이나 망자(亡者)를 위한 의대용으로 사용되어 백관들의 성복(成服)(선조실록 126권, 1600)과 최복(衰服)(인조실록 46권, 1645), 망자의 의대용으로 습(襲)용(세종실록 134권, 1454; 선조실록 38권, 1593; 순조실록 34권, 1834; 순종실록부록 17권, 1926), 능침용(선조실록 38권, 1593), 재궁용(영조실록 127권, 1776; 정조실록 54권, 1800) 등으로 이용되었다.

3) 철릭의 착용실태

철릭은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왕실을 포함한 여러 다양한 계층에서 착용되었으며 왕실에서 철릭을 사용한 예로는, 성종이 더위로 인해 궁중에서 의복을 갖추어 입지 않고 철릭을 착용(성종실록 217권, 1488)하였다거나 효장세자(孝章世子)가 책봉례 시 청철릭(靑天翼)을 착용(영조실록 4권, 1725)하였으며 영조가 장릉 거동 시 소철릭(素帖裏)을 착용(영조실록 30권, 1731)하였고 공릉, 순릉, 효순묘 거동 시 및 의소세손(懿昭世孫) 장사 시 흥배(揚) 없는 흑사철릭(黑紗帖裏) 착용(영조실록 75권, 1752; 영조실록 76권, 1752)한 것을 비롯해 행차 시 국왕과 왕세자의 복색을 베포철릭으로 하라는(고종실록 27권, 1890) 기록 등이 있다.

각 시기별로 철릭에 대해 살펴보면 [태조~성종]대에는 시위군사, 각전·각궁의 별감과 전악서의 악공, 상림원별감, 대장, 대부, 부사, 서인과 지방의 일수양반, 공상, 천례, 수릉관, 시릉환관, 노비,

백정 등 다양한 계층에서 착용하였다. 이에 관한 내용으로는, 세종이 문밖 거동 시 시위 군사들에게 철릭을 입도록 병조에 전교(세종실록 28권, 1425)하였다는 기록과, 의정부에서의 의복 금제조건 중 각전·각공의 별감과 전악서 악공의 평상시 복장과 서울 안 상림원별감과 대장, 대부, 부사, 서인과 지방의 일수양반, 공상, 천례 등의 공통 복장으로 직령협주음철릭(直領狹注音帖裏)을 착용해야 한다(세종실록 123권, 1449)는 기록을 통해 알 수 있으며 수릉관(守陵官)과 시릉환관(侍陵宦官)에게 백저포직령철릭(白苧布直領帖裏)과 포철릭(布帖裏)을 내려준 기록(단종실록 6권, 1453)이나 자살하려던 신상(選上) 노비(奴)에게 면포철릭(綿布帖裏)을 내려준(세조실록 36권, 1465) 기록, 백정 신철산 국문 시 철릭이 자기 소유인지 다른 곳에서 얻은 것인지 묻지 않았다는(세조실록 45권, 1468) 기록 등이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보아 철릭을 실제 착용 목적이 아닌 상(賞)의 목적으로만 내려 주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전제한다면 철릭이 신분과 관계 없이 다양한 계층에서 착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중국인 어린이에게 홍면포유철릭(紅綿布襦帖裏), 회색면포유철릭(灰色綿布襦帖裏)을 하사(성종실록 112권, 1479)한 기록도 남아 있는데, 중국인 어린이를 위해 철릭을 특별히 제작하지는 않았으리라 판단되며 효장세자가 책봉례 시 7세의 어린나이에 청철릭을 착용(영조실록 4권, 1725)한 사실로 보아 성인남성용 외에 어린이이용의 철릭도 존재하였을 것이라 사료되나 그 이후의 기록에는 어린이의 철릭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아 단언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연산군~현종] 시기에는 문관들의 철릭 착용을 꺼려하는 분위기와 함께 무관의 철릭 착용이 당연시되었으나 무관들 사이에서도 철릭착용에 대한 부정적 의식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철릭에 대해 '호복(胡服)에 가까우니 그것을 착용한 채로 글을 보아서 안 되고 직령 같은 것을 입고 글을 보는 것이 좋다'고 중종에게 참찬관 조광조의 의관 정제에 대해 언급(중종실록 31권, 1518)한 내용이나 선비에게는 관건(冠巾), 단령(團領)을 착용하게 하며 무인에게는 모립, 철릭을 착용하도록 상소(명종실록 15권, 1553)한 기록, '무사처럼 초록색 철릭(天益)을 입은 자'(광해군일기중초본

176권, 1622) 등과 같은 내용을 통해 문관들 사이에서는 철릭 착용이 권장되지 않았으며 무관의 의복으로 철릭이 당연시 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철릭이 조예(皂隸)의 옷이라 중국인에게 비웃음거리가 되니 조정의 장복(章服)을 마련하자는 주장이 나왔으나 이에 대해 왜적 경계가 중하며 관디가 급무가 아니므로 추후에 재논의(선조실록 108권, 1599) 하자는 식으로 마무리 되었다.

[숙종~순종] 시기에는 부모의 천인들도 철릭을 입고 갓을 쓰는(영조실록 71권, 1750) 등 철릭의 위상이 매우 낮아졌으며 무관들도 철릭 착용을 싫어하는(영조실록 10권, 1726) 분위기가 강해졌으나 조정(朝廷)에서는 여전히 무관에게 철릭을 착용하도록 신칙하였다. 그 예로, 무과 방방(放榜) 시 급제자에게 백철릭을 착용시킨(숙종실록 5권, 1676) 기록과 관포 안에 창 의 대신 철릭을 입도록 해야 하며 무신들에게 흑철릭을 착용하도록 신칙해야한다(영조실록 10권, 1726)는 기록들이 있다.

이렇듯 철릭을 무신복으로 확고히 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신들의 철릭착용에 대한 기강이 해이해졌으므로 국가에서는 철릭착용에 대해 엄격한 관리를 하게 된다. 특히 영조 대와 정조 대에 활발하여, 영조 대에는 철릭착용을 신칙하지 않은 황해병사 원백규를 파직(영조실록 11권, 1727)시켰으며 무신들의 직령 착용 금지 및 철릭 착용에 대한 신칙(영조실록 57권, 1743; 영조실록 71권, 1750)을 통해 무신의 철릭착용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나타냈다. 정조 대에는 영원히 준행하기 어려운 법을 지레 시행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무관의 직령 금지를 신칙하지 않았(정조실록 34권, 1792)으나 이후 무관의 직령 착용을 금하지 않은 이주국을 유배(정조실록 35권, 1792) 시켰으며 어가 호위 시의 주립과 철릭 혁파 주장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보류(정조실록 38권, 1793)하는 등 철릭을 무신복으로서 확고히 하려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릭을 혁파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기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이를 반대하며 철릭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나오기 시작하였다. 철릭의 혁파를 주장한 이유로는 편리성과 효율성을 들 수 있으며, 행 부사직 이문원이 어가(御駕) 호위 와 능 거동시의 예를 들며 철릭의 혁파를 주청(정조실록 38권, 1793)하였으며 병

조참관 임제원도 단계적으로 철릭을 제거하자는 군교의 복색제도 개혁을 상소(정조실록 38권, 1793)하였으나 철릭 혁파에 대한 의견은 일단 보류(정조실록 38권, 1793)되었다. 철릭을 유지하자는 의견으로, 좌의정 심상규는 철릭을 융복이라 이르며 군복의 사치와 허비가 심하니 하나를 버려야 할 경우 군복을 버려야 할 것이라고 복식개혁에 반대(순조실록 34권, 1834)하였다.

이와 같은 변화를 거쳐 철릭이 착용되는 기간 동안 사치하는 풍조도 나타났으며 이를 경계하고자 성종 대에는 진상 시의 철릭 폭을 14폭 이내로 제한(성종실록 13권, 1471)하였으며 신분에 따라 사족(士族)은 13폭 이내로, 서인(庶人)은 12폭 이내로 제한(성종실록 14권, 1472)하였다. 연산군 대에는 철릭을 가장 짧게 만들게(연산군일기 58권, 1505)하였으나 사치하는 폐단은 여전히 시정되지 않아 조례들의 철릭 소매가 거의 온폭의 비단을 사용(정조실록 38권, 1793)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결국 고종 대에 융복을 군복으로 대응하며 조례들의 철릭도 전투복으로(고종실록 20권, 1883)되었으나 철릭 철폐는 군사들에게만 해당된 것으로

그 이후에도 왕과 왕세자는 행차 시 철릭을 착용(고종실록 27권, 1890)하였다.

2. 철릭의 소재 및 색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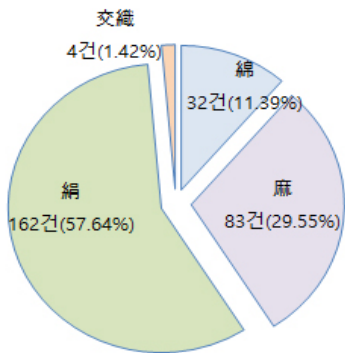
1) 철릭의 소재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철릭의 주요 직물은 면(綿), 마(麻), 견(絹), 교직(交織) 등으로 <표 2>, <그림 2>와 같이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견직물이 많이 나타났다. 특히 견직물의 주(紬)가 많이 사용되었으며 그 다음은 마직물의 저포(苧布)였다. [태조~성종대에는 <그림 3>과 같이 견직물인 주(紬), 단(緞) 뿐 아니라 마직물인 저포(苧布) 등의 사용이 주를 이루며 그 외 면직물인 면포(綿布)와 마직물인 마포(麻布) 등 다양한 종류의 직물이 사용되었다. 특히 세조대와 성종대에 다양한 직물이 철릭의 소재로 사용되어 세조대에는 면포(綿布), 저포(苧布), 세저포(細苧布), 마포(麻布), 세마포(細麻布), 주(紬), 면주(綿紬), 사(紗), 라(羅), 초(綃), 단(緞), 단자(緞子), 채단(彩段), 교직(交織)인 저사(苧絲) 등 다양한 직물의 기록이 나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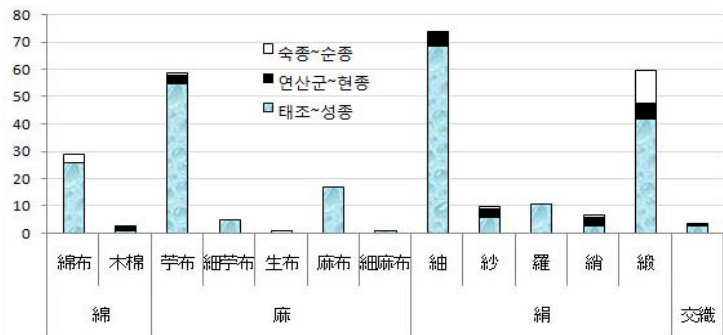
<표 2> 철릭의 주요 직물

단위: 개

시기	소재		麻					絹					交織
	綿布	木棉	苧布	細苧布	生布	麻布	細麻布	紬	紗	羅	綃	緞	
태조~성종	26	1	55	5	0	17	1	69	6	11	3	42	3
연산군~현종	0	2	3	0	0	0	0	5	3	0	3	6	1
숙종~순종	3	0	1	0	1	0	0	0	1	0	1	12	0
계	29	3	59	5	1	17	1	74	10	11	7	60	4



<그림 2> 철릭의 직물별 비율



<그림 3> 시기별 철릭의 직물 비교

성종대에는 면포(綿布), 목면(木棉), 저포(苧布), 마포(麻布), 주(紬), 면주(綿紬), 사주(絲紬), 사(紗), 초(綃), 단(緞), 단자(緞子), 문단(紋緞), 필단(匹段), 무문단자(無紋段子), 유문단자(有紋段子), 교직(交織)인 저사(苧絲) 등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 세조가 한명희에게 초피(貂皮)로 안짚을 한 백초철릭(白綃帖裏)을 하사(세조실록 19권, 1460)한 기록도 있어 철릭의 내부에 모피를 둔 방한용 철릭도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철릭의 소재로 다양한 직물이 사용되었으나 신분에 따른 직물의 제한 사항도 존재하여 성종 대에 사(絲)와 주(紬) 두 가지로 당상관과 당하관의 옷을 짓도록(정조실록 38권, 1793)하는 규정이 나오게 된다. 그 후 군민의 견직물 착용 금지(선조실록 71권, 1596) 및 장사꾼의 비단옷 착용 금지(광해군일기중초본 119권, 1617) 등을 시행하였으나 여전히 철릭의 소재로 견직물이 주를 이루었으며 특히 [숙종~순종시기의 기록에서는 견직물 중 단(緞)으로 제작된 철릭이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를 견직물 소재의 철릭이 조선후기에 많이 착용되었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보다는 철릭 관련 기록이 조선후기로 가면서 감소되고 용도가 하사용이나 착용목적 외에 소렴용(小殮用)이나 재궁용(齋宮用) 의대로 이용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 분석해야 할 것이다.

용도에 따른 철릭의 직물 특성을 살펴보면, [태조~성종 시기에는 철릭의 하사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으로 신하 또는 백성에게 철릭을 하사한 기록은 세조와 성종 대에 집중되어 많이 나타나 있으며 견직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관련 기록으로 세조 대에 초록라철릭(草綠羅帖裏), 남라철릭(藍羅帖裏), 도홍라철릭(桃紅羅帖裏)을 하사(세조실록 7권, 1457; 세조실록 15권, 1459), 성종 대에 필단유철릭(匹緞襦帖裏)을 하사(성종실록 46권, 1474; 성종실록 50권, 1474)한 것 등이 있다. 또한 외국사신에게 하사한 기록은 단종, 세조, 성종 대에만 나타나며 대홍주철릭(大紅紬帖裏)(단종실록 3권, 1452; 단종실록 14권, 1455) 초록주겹철릭(草綠紬袂帖裏)(세조실록 19권, 1460), 대홍주남요선겹철릭(大紅紬藍腰線帖裏)(성종실록 129권, 1481; 성종실록 156권, 1483) 등의 견직물과 백저포철릭(白苧布帖裏)(단종실록 2권, 1452; 단종실록 14권, 1455; 세조실록 15권, 1459; 세조실

록 16권, 1459; 성종실록 120권, 1480; 성종실록 132권, 1481; 성종실록 156권, 1483) 및 흑마포철릭(黑麻布帖裏)(세조실록 46권, 1468; 성종실록 156권, 1483) 등의 마직물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왜인이나 야인에게 철릭을 하사한 기록이 세조 대에는 대홍라요선철릭(大紅羅腰線帖裏), 아청라요선철릭(鴨靑羅腰線帖裏)(세조실록 19권, 1460) 등을 포함한 견직물 소재가 가장 많았으며 저포철릭(苧布帖裏), 마포철릭(麻布帖裏) 등의 마직물(세조실록 15권, 1459; 세조실록 16권, 1459)도 다소 있었다. 그러나 성종 대에는 초록주유철릭(草綠紬襦帖裏), 홍주유철릭(紅紬襦帖裏)(성종실록 152권, 1483) 등 견직물 소재가 가장 많았으며 기타 세조 대 표도인과 성종 대 표류인에게 하사한 철릭은 모두 마직물 소재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연산군~현종시기에는 연산군, 중종, 선조 대에만 하사의 기록이 나오며 신하에게 하사한 철릭의 소재는 대부분 견직물이었다. 그 밖에 연산군 대에 철릭이 상공과 진상에 쓰였다는 기록이 나와 있으나 상공 시 잡색유목면철릭(雜色襦木綿帖裏)이 사용(연산군일기 55권, 1504)되었다는 내용 외에 소재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나와 있지 않다.

[숙종~순종시기에는 철릭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 의복제도에 관한 것으로 하사에 대한 기록은 나와 있지 않으며 국왕이 묘 거동 시와 장사(葬事) 시 흥배 없는 견 소재의 흑사철릭(無揚黑紗帖裏)을 착용(영조실록 75권, 1752; 영조실록 76권, 1752)한 예도 있다. 또한 국왕의 소렴용과 재궁용으로 이용된 철릭의 소재도 견직물로, 소렴용 의대로 다홍운문단철릭(多紅雲文緞帖裏), 다홍운문단갑사철릭(多紅雲文緞甲紗帖裏)(순조실록 34권, 1834) 등과 재궁용 의대로 다홍대단철릭(多紅大緞帖裏)(영조실록 127권, 1776)이나 진홍영초단철릭(眞紅領綃緞帖裏), 진홍궁초철릭(眞紅宮綃帖裏), 진홍용문단철릭(眞紅龍文緞帖裏)(정조실록 54권, 1800) 등이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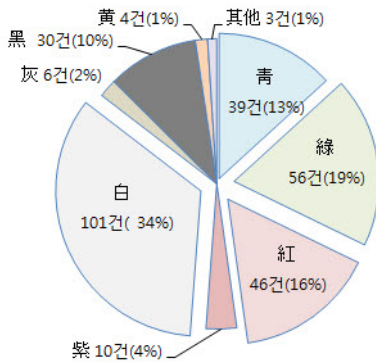
2) 철릭의 색상

철릭의 주요 색상은 백(白), 녹(綠), 홍(紅), 청(靑), 흑(黑), 자(紫), 회(灰), 황(黃) 등으로 <표 3>과 <그림 4>에서 알 수 있듯이 백색 철릭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특히 [태조~성종시기와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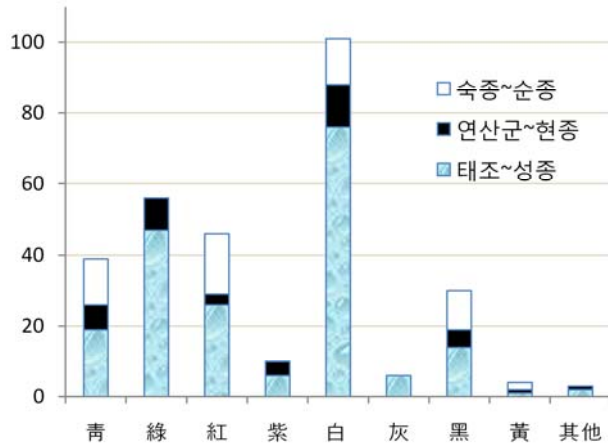
〈표 3〉 철릭의 주요 색상

단위: 개

	白	綠	紅	靑	黑	紫	灰	黃	其他
태조~성종	76	47	26	19	14	6	6	1	2
연산군~현종	12	9	3	7	5	4	0	1	1
숙종~순종	13	0	17	13	11	0	0	2	0
계	101	56	46	39	30	10	6	4	3



〈그림 4〉 철릭의 색상별 비율



〈그림 5〉 시기별 철릭의 색상 비교

산군~현종시기에 백색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백색 다음으로는 녹색이 많이 사용되었다. 특히 세조실록과 성종실록에 백색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나 [숙종~순종대에는 홍색이 가장 많았으며 이전 시기에 비해 철릭의 색상이 단순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철릭의 소재로 다양한 색상이 쓰여 졌으나 신분이나 상황에 따라 제한이 있어 연향(宴享) 및 거동(舉動) 시 당하내관의 철릭 색상은 초록(草綠), 남(藍), 유청(柳靑)으로(연산군일기 57권, 1505), 행차 시 나장(羅將)의 철릭 색상은 검은색(연산군일기 62권, 1506), 공제한 후의 국왕의 시복(時服)이나 무과 방방 시 급제자들의 철릭 색상은 백색(인조실록 46권, 1645; 숙종실록 5권, 1676)으로 제한을 두었다. 그러나 색상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국왕의 의장(衣裝)인 홍색(紅色)계열의 철릭을 관리들이 착용(명종실록 31권, 1565; 광해군일기 정초본 119권, 1617)한 사실이나 영조가 우리나라는 동방의 나라이기 때문에 청색을 숭상해야 하나 백성들이 흰색을 숭상하므로 공경

(公卿)에서 사서(士庶)까지 길복(吉服)은 일체로 청색을 숭상하라고 한(영조실록 10권, 1726) 점 등으로 보아 색상의 제한이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 외 사묘(四廟) 동가 시와 능(陵) 거동 시 직책에 따라 철릭 색상도 차등을 두어 사묘(私廟) 동가(動駕) 시 시위제장의 철릭은 백색이었으나 시위대장의 철릭은 흑색(영조실록 21권, 1729)으로 하였으며 능 거동 시의 시위복(侍衛服)은 백철릭(白天翼)으로, 대장 및 중군은 청철릭(靑天翼)으로 하였다(영조실록 30권, 1731). 또한 호궐시의 복색도 차이를 보여 경조 즉위년(1720년), 영조 즉위년(1724년), 정조 즉위년(1776년)에는 시사복과 용복 모두 순백색이었으나 정조 11년(1787년)에는 용사에는 청색, 시사에는 백색으로 하였으며 전좌복색 및 승지·사관의 복색은 청색 철릭(靑色天翼)으로 하였다(정조실록 23권, 1787). 또한 순조 대에는 곤수 이상을 거친 무신에게만 철릭에 사단 잡색을 허락하였으며 문관·음관·무관의 당하관 철릭 색상을 청색으로 개용하고 홍색의 철릭은 모두 금지시켰다

(순조실록 34권, 1834). 그러나 현종 때에는 교가 시위 시의 당하관 철릭 색상을 다시 홍색으로 변경하였다(현종실록 9권, 1842).

그 밖에 철릭의 용도별 색상특성을 살펴보면 [태조~성종] 시기에 하사한 철릭의 색상은 백색이 대부분이었으며 세조대에 신하와 사신에게 하사한 철릭의 색상은 공통적으로 백색과 청색이 다수였다. 그러나 성종대에 신하에게 하사한 철릭의 색상은 홍색이 다수로 백색과 자색이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사신에게 하사한 철릭의 색상은 백색이 다수였으며 홍색, 청색, 녹색이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또한 왜인이나 야인에게 하사한 철릭의 색상은 세조 때에는 백색이, 성종 때에는 홍색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연산군~현종] 시기에 신하에게 하사한 철릭의 색상은 전반적으로 녹색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여 연산군대에 경변사(警邊使) 이극균과 주서(注書) 안지성에게 각각 초록주유철릭과 초록철릭을 하사(연산군일기 34권, 1499; 연산군일기 61권, 1506)한 것을 비롯하여 중종대 평안병사 차견과 사은사에게 초록필단유철릭을 하사하였다(중종실록 60권, 1528; 중종실록 90권, 1539). 또한 [숙종~순종] 시기에는 국왕의 묘 거동 시나 장사 시에 흰색이나 검은색 철릭이 착용되었으나 소렴용의 대 및 재궁용의 대로 사용된 철릭의 색상은 진홍, 다홍(영조실록 127권, 1776; 정조실록 54권, 1800) 등의 밝은 색상이 이용되었다.

V. 맺음말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의 대표적 복식이라 할 수 있는 철릭에 대해 조선왕조실록을 중심으로 고찰하였으며 개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철릭의 명칭은 조선시대 전 시기에 걸쳐 한자로 다양하게 표기되었으나 '帖裏'의 용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특히 '天翼'의 용어는 조선 후기에만 사용되었다.

둘째, 철릭은 국왕부터 일반백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에서 착용되었으나 조선 후기로 갈수록 무신들의 의복으로 확고히 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의장용 뿐 아니라 신하에게 하사하는 하사용, 외국사신에게 선물하는 외교용, 망자의 소

렴용, 재궁용으로 이용되었으며 특히 세조대와 성종대에 외교적 목적으로 많이 이용되었다.

셋째, 철릭의 주요 직물은 면, 마, 견, 교직 등으로 그 중 견직물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주요 색상은 백, 녹, 홍, 청, 흑, 자, 회, 황 등으로 백색이 가장 많았고 조선 후기로 갈수록 철릭의 직물 및 색상이 단순화되었다. 신하나 외국 사신들에게 하사하는 철릭과 소렴용 및 재궁용 철릭에도 견직물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묘 거동 시나 제사 시의 철릭 색상도 백색을 많이 사용하였다. 신분이나 상황에 따른 소재의 제한도 존재하여 사와 주 두 가지로 당상관과 당하관의 옷을 짓도록 하였으며 군민이나 장사꾼에게는 견직물의 착용을 금지시켰다. 또한 백관의 당하관 철릭 색상을 청색으로 개용한 후 다시 홍색으로 변경하고 무신의 철릭은 곤수 이상을 거친 자에게만 사단잡색을 허락하는 등 신분에 따른 철릭의 색상 제한도 가해졌다.

이와 같이 철릭은 여러 해를 거치면서 착용대상이나 특성 등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조선 후기로 가면서 철릭이 융복으로서의 무신용 의복으로 고착화되었으며 편리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군복으로서의 기능이 저하된다는 여론이 강해지게 되어 결국 고종대에 철폐되었다.

본 연구는 조선왕조실록을 중심으로 철릭의 특성 및 착용실태, 용례 등을 고찰하였으므로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전통복식인 철릭을 현대에 적용시켜 발전시키는 방안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조선왕조실록에는 디테일 등의 세부적 특성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 그에 대한 자세한 고찰이 부족하였으므로 추후에는 출토복식이나 기타 문헌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의복은 그 사회의 생활상이나 가치체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으므로 철릭의 세부적 용례를 통한 역사적 의미나 가치 등과의 관계를 연구한다면 좀 더 폭넓은 연구가 될 것이라 생각된다.

참고문헌

강순제. (1981). 帖裏小考. *성심여자대학교 논문집*, 12, 177.

- 김명자. (2015). *조선시대 17세기 철릭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중숙. (2003). *조선시대 철릭의 형태 및 바느질법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중숙. (2011). *朝鮮時代 帖裏*.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아람, 박윤미. (2015). 조선왕조실록 표장직물에 관한 고찰. *아시아민족조형학보* 15, 5-20.
- 김인숙. (1977). *深衣考*. 복식 1, 101-117.
- 김지혜. (2007). *철릭의 디자인 현대화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아트퓨전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홍. (2010). *麗末鮮初 腰線帖裏의 구성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찬주. (1980). *철릭에 관한 服飾史的 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정. (2007). *심의와 철릭을 활용한 나이트가운 개발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지혜. (2002). *조선시대 광주·전남지역 출토철릭에 관한 연구*. 광주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 서지혜, 안명숙. (2001). 조선 초·중기 홑철릭에 관한 연구. *한복문화*, 4(4), 23-34.
- 소황옥, 양승옥. (2001). 패션 한복의 디자인을 위한 철릭의 비교 연구. *한복문화*, 4(4), 76.
- 溫楊民俗博物館. (1989). *安東金氏 墳墓發掘 調査報告書*.
- 양승옥. (2001). *패션 한복의 디자인을 위한 철릭의 비교 연구*.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
- 양주동. (1955). *麗謠箋注*. 서울: 을유문화사, 333.
- 榮州市編. (1998). *判決事 金欽祖先生 合葬墓 發掘 調査 報告書*.
- 유송옥. (1991). *朝鮮王朝 宮中儀軌服飾*. 서울: 수학사, 154.
- 이순자. (2001). 帖裏에 관한 再考論. *복식문화연구*, 9(2), 207-222.
- 이은주. (1988). 철릭의 명칭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2(3), 363-371.
- 장인우. (1997). 조선시대 첩리의 명칭과 유형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1), 389-399.
- 장인우. (2001). 출토복식을 통해 본 17세기 봉제 구성. *복식*, 51(1), 33-48.
- 장인우. (2002). 조선전기 솜털릭(帖裏) 구성에 대하여. *복식*, 52(8), 109-122.
- 정혜경. (2000). 조선시대 철릭과 남자 포류와의 상호관계. *한국의류학회지*, 24(2), 229.
- 최은수. (2003). 변수(邊修:1447~1524)묘 출토 요선철릭에 관한 연구. *복식*, 53(4), 163-176.
- 최진경. (2003). *조선시대 철릭의 조형성을 응용한 현대 의상디자인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http://sillok.history.go.kr/>
- 고종실록 20권. 고종 20년(1883) 1월 28일 경술.
- 고종실록 27권. 고종 27년(1890) 10월 7일 계묘.
- 광해군일기 정초본 119권. 광해 9년(1617) 9월 26일 무자.
- 광해군일기중초본 176권. 광해14년(1622) 4월23일 무자.
- 단종실록 2권. 단종 즉위년(1452) 8월22일 임오.
- 단종실록 3권. 단종 즉위년(1452) 윤 9월 17일 병자.
- 단종실록 6권. 단종 1년(1453) 5월19일 을해.
- 단종실록 14권. 단종 3년(1455) 4월22일 정유.
- 단종실록 14권. 단종 3년(1455) 5월 20일 갑자.
- 명종실록 15권. 명종 8년(1553) 10월 23일 병신.
- 명종실록 31권. 명종 20년(1565) 1월 13일 신해.
- 선조실록 38권. 선조 26년(1593) 5월 2일 을묘.
- 선조실록 38권. 선조 26년(1593) 5월 29일 임오.
- 선조실록 64권. 선조 28년(1595) 6월 11일 임자.
- 선조실록 71권. 선조 29년(1596) 1월 30일 정유.
- 선조실록 108권. 선조 32년(1599) 1월 28일 기유.
- 선조실록 126권. 선조 33년(1600) 6월28일 기해.
- 성종실록 13권. 성종 2년(1471) 12월 5일, 임신.
- 성종실록 14권. 성종 3년(1472) 1월 22일 기미.
- 성종실록 46권. 성종 5년(1474) 8월 19일 신축.
- 성종실록 50권. 성종 5년(1474) 12월 19일 경자.
- 성종실록 105권. 성종 10년(1479) 6월 20일 을사.
- 성종실록 112권. 성종 10년(1479) 12월20일 신미.
- 성종실록 120권. 성종 11년(1480) 8월 5일 임자.
- 성종실록 129권. 성종 12년(1481) 5월 16일 경인.
- 성종실록 132권. 성종 12년(1481) 8월 10일 임자.
- 성종실록 152권. 성종 14년(1483) 3월 12일 갑진.
- 성종실록 156권. 성종 14년(1483) 7월 2일 임진.
- 성종실록 156권. 성종 14년(1483) 7월16일 병오.
- 성종실록 156권. 성종 14년(1483) 7월 30일 경신.
- 성종실록 217권. 성종 19년(1488) 6월 2일 갑오.

- 세조실록 1권. 세조 1년(1455) 7월 7일 경진.
 세조실록 4권. 세조 2년(1456) 7월 19일 병술.
 세조실록 7권. 세조 3년(1457) 4월 13일 병오.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1459) 3월 10일 임진.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1459) 3월 15일 정유.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1459) 3월 25일 정미.
 세조실록 16권. 세조 5년(1459) 4월 8일 기미.
 세조실록 16권. 세조 5년(1459) 5월 6일 정해.
 세조실록 18권. 세조 5년(1459) 11월 12일 경인.
 세조실록 19권. 세조 6년(1460) 3월 2일 기묘.
 세조실록 19권. 세조 6년(1460) 3월 9일 병술.
 세조실록 19권. 세조 6년(1460) 3월 10일 정해.
 세조실록 33권. 세조 10년(1464) 5월 18일 경오.
 세조실록 36권. 세조 11년(1465) 6월 28일 갑진.
 세조실록 45권. 세조 14년(1468) 2월 26일 정사.
 세조실록 46권. 세조 14년(1468) 4월 9일 무술.
 세조실록 46권. 세조 14년(1468) 4월 21일 경술.
 세조실록 46권. 세조 14년(1468) 5월 19일 무인.
 세조실록 47권. 세조 14년(1468) 7월 1일 무오.
 세조실록 47권. 세조 14년(1468) 7월 8일 을축.
 세종실록 25권. 세종 6년(1424) 8월 16일 무오.
 세종실록 28권. 세종 7년(1425) 4월 1일 경자.
 세종실록 103권. 세종 26년(1444) 3월 26일 병자.
 세종실록 123권. 세종 31년(1449) 1월 25일 병오.
 세종실록 134권. (1454). 오례, 흥례의식.
 숙종실록 5권. 숙종 2년(1676) 2월 8일 경신.
 순조실록 34권. 순조 34년(1834) 4월 29일 갑자.
 순조실록 34권. 순조 34년(1834) 5월 16일 경진.
 순조실록 34권. 순조 34년(1834) 11월 15일 병자.
 순조실록부록 17권. 순종 19년(1926) 4월 27일 양력.
 연산군일기 21권. 연산 3년(1497) 1월28일 경오.
 연산군일기 34권. 연산 5년(1499) 7월 20일 무인.
 연산군일기 35권. 연산 5년(1499) 12월4일 무자.
 연산군일기 52권. 연산 10년(1504) 2월 19일 신해.
 연산군일기 55권. 연산 10년(1504) 8월 20일 정축.
 연산군일기 57권. 연산 11년(1505) 4월 10일 을축.
 연산군일기 58권. 연산 11년(1505) 6월 25일 무인.
 연산군일기 61권. 연산 12년(1506) 2월 23일 계유.
 연산군일기 62권. 연산 12년(1506) 4월 13일 임술.
 영조실록 4권. 영조 1년(1725) 3월 20일 무오.
 영조실록 10권. 영조 2년(1726) 10월 8일 병인.
 영조실록 11권. 영조 3년(1727) 3월19일,1727
 영조실록 21권. 영조 5년(1729) 3월 4일 무신.
 영조실록 30권. 영조 7년(1731) 7월 18일 기묘.
 영조실록 30권. 영조 7년(1731) 8월 16일 병오.
 영조실록 57권. 영조 19년(1743) 3월 14일 무진.
 영조실록 71권. 영조 26년(1750) 3월 23일 병인.
 영조실록 71권. 영조 26년(1750) 6월 5일 병자.
 영조실록 75권. 영조 28년(1752) 2월 8일 경자.
 영조실록 76권. 영조 28년(1752) 5월12일 임신.
 영조실록 127권. 영조 52년(1776) 3월 9일 경진.
 영조실록 부록. 영조대왕행장(1776).
 인조실록 46권. 인조 23년(1645) 5월 7일 무자.
 인조실록 46권. 인조 23년(1645) 5월 11일 임진.
 정조실록 23권. 정조 11년(1787) 1월2일 신미.
 정조실록 28권. 정조 13년(1789) 10월 7일 기묘.
 정조실록 34권. 정조 16년(1792) 1월22일 임진.
 정조실록 35권. 정조 16년(1792) 8월3일 기사.
 정조실록 38권. 정조 17년(1793) 9월 25일 을묘.
 정조실록 38권. 정조 17년(1793) 10월 8일 무진.
 정조실록 38권. 정조 17년(1793) 10월 11일 신미.
 정조실록 54권. 정조 24년(1800) 7월 3일 계미.
 중종실록 31권. 중종 13년(1518) 1월 18일 무오.
 중종실록 60권. 중종 23년(1528) 2월 3일 을사.
 중종실록 90권. 중종 34년(1539) 4월 25일 임신.
 현종실록 9권. 현종 8년(1842) 9월 5일 경술.